

구어·문어 통합 문법 기술의 방향과 자료 구축의 문제*

배진영**·손혜옥***·김민국****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문법 연구의 방향은 구어와 문어 상에서 나타나는 문법 실현 양상의 차이를 단순히 '구어'對'문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화 혹은 기술상에서 정도성을 지니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용역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어와 문어 문법을 서로 대비되는 문법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들의 문법을 아우르는 문법 기술을 이론화하여 체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을 근간으로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역에 따른 문법적 현상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며 그 원인을 적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
- * 이 논문은 제27회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지원(KRF 2009-361-A00027)으로 이루어졌음.
 - **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 연구 교수
impu@paran.com
 -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
darmal@hanmail.net
 -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
ichliebedich35@hanmail.net

본고는 먼저 국내의 구어 문법 연구가 어떤 관점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구어와 문어의 통합적인 문법 기술의 입장에서 지양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보인다. 그런 다음 구어와 문어로 대비되는 기존 문법 기술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함께, 앞으로 진행해야 할 구어와 문어 문법을 통합하여 기술을 위해 필요한 문법 기술의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제안한다. 또한 현재 구어와 문어와 관련하여 이들의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 말뭉치의 설계와 구축 현황에 대한 반성을 통해 향후 사용역에 따른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을 기술하기 위한 말뭉치의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어: 구어, 문어, 통합 문법, 사용역, 말뭉치

I. 서 론

인간이 지닌 사유의 세계를 발현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말과 글, 즉 언어이다. 말과 글은 단순한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넘어 지식 사유에 대한 상호간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말과 글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언어학의 한 하위 분야로 연구되는 것이 ‘문법’으로, 본고는 이러한 문법 분야의 연구에서 언어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문법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던 구어와 문어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구어와 문어라는 단편적 장르에 나타나는 양상들만을 대상으로 한 피상적인 현상에 관심을 두고 이를 문법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다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존 구어 문법을 다루었던 많은 논의들은 구어가 사

용되는 사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나타내는 문법 현상에 대한 실제적 고민보다는 기존 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법 현상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문법에 어긋나는 것, 혹은 기존 문법에 들어맞는 것 정도의 양상을 보이는 데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구어 문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기존에 문어에서의 사용 양상을 통해 기술된 문법과의 차이를 보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렇듯 구어와 문어 문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면서도 구어 문법이 과연 문어 문법과 어떤 차이 또는 유사점을 보이는지, 혹은 문어 문법과 동일한 문법 체계를 지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 아래에서 구어와 문어 문법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술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구어와 문어 문법 연구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에 대한 근간을 다지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를 통해 구어면 구어, 문어면 문어라는 이분법적 사고 중심으로 각기 개별적 문법으로 간주되어온 두 분야의 문법을 통합하여 기술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학문적 요소들 간의 상호 보완적 문법 기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이러한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서 기존의 구축된 자료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구축해야 할 자료에 대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II. 구어 문법의 연구 현황

국어 구어를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전반적인 문법 체계의 기술보다는 문어와 대비되는 특정한 구어 자료 분석을 통해 문어와 차별화되는 항목들에 대한 기술에 좀 더 많이 치중되어 왔다.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능적인 단위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면서도 문어 문법과의 차별성 또는 연계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연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구어 문법 연구의 방향을 고려하면서 기존에 다루어졌던 구어 관련 문법 기술들을 대상으로 ‘문법 연구 대상으로서 구어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어 문법 연구 관점을 제시하여 살핀다.

첫째, 즉흥적인 성격을 지니고, 비정제된 구어로는 인간의 추상적 사고 체계에서 이미 내재되어 정제되어 전달되는 체계적 정보인 ‘문법’을 연구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둘째,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추상적 사고에서 즉흥적으로 발화되는 구어야말로 진정한 ‘문법’의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구어와 문어의 문법이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 혹은 문어가 지니는 일종의 자료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구어와 문어 문법이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2.1. 구어를 문법 연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관점

이러한 관점은 주로 문법 연구를 형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다루고 있는 구조문법이나 변형문법 연구들에서 발견된다. ‘형식적’ 문법 연구들에서의 문법은 그 언어의 문법적인 문장을 모두

생성시켜야 하며, 결코 비문법적인 문장을 생성시켜 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임홍빈·장소원, 1995:207, 이익섭·임홍빈, 1994:40). 이러한 문법 연구들에서 문법 연구 대상은 언어 수행상에 나타나는 한계나 결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화자가 가지는 내재적인 언어 능력으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규칙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비형식적이고 상황 의존적인 구어는 이러한 문법 연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1) 가. *산 언어 중심의 언어생활이란 결코 독서 능력의 저하나 문화유산의 계승을 외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나. *교실의 남쪽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은 이조 시대의 유명한 위인이시다.

(왕문용·민현식, 1993:11)

(1)은 문장 내 주어와 서술어의 일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어 서술어 일치라는 문법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이 비문법적으로 판단된다고 예를 든 것이다. 다음은 서술의 선택 제약과 관련한 예문이다.

(2) 가. *소나무가 웃는다.

나. *정객은 권력을 존경한다.

다. *아이들이 모두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손에 장갑을 입었다.

(남기심·고영근, 1993:253)

(2)에서의 예들은 용언들의 성격에 따라 유정명사나 인성명사를 주어 또는 목적어로 지녀야 한다는 선택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 자질을 어겼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라고 본 예들

이다. 그런데 만약 (1)과 (2)가 구어로서 발화된 내용이 전사된 자료라면 이 문장에 대한 문법의 적격성 판단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화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발화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맥이나 발화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이와 같은 방향의 문법 기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기존의 문어 자료 중심의 문법 연구들에서는 문어 자료만으로는 실제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언어 현상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양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구어와 문어를 포함하는 언어 수행에 나타나는 자료들이 문법 연구 대상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법 연구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법 연구들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 현상에 대한 ‘말뭉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연구로(장경희, 2009:10)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¹⁾ 그러나 이러한 실제 사용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법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구어 자료 연구를 위한 실제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는 기존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법 연구의 방법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구어 연구의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2.2. 구어의 독자적 문법이 있다고 보는 관점

대규모의 말뭉치가 구축되고, 그 안에 구어 말뭉치도 구축이

1) 언어 연구에 있어서 말뭉치(코퍼스) 접근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은 장경희(2009:12-13) 참고. 장경희(2009:18)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구어 연구를 위해서는 문어 문법 현상 중심의 구어 자료 분석, 문어를 기준으로 한 구어 특징 분석 등의 구어 자료 접근에 대한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되면서 그 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이 필요해졌다. 많은 경우 문어와의 차이에 주목하여 기술되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문어 문법과는 다른 구어 문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에 대한 문법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권재일(2002, 2003, 2004), 김건희·권재일(2004), 지현숙(2009), 최정순(2006), 목정수(2010) 등의 논의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권재일(2002, 2003, 2004)은 각각 의향법의 실현 양상이 구어의 경우 문어와는 그 양상이 다른 것에 착안하여 한국어 대화 전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계량적 연구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문어와 달리 구어에서는 일반적인 문장 종결어미가 아닌 범용어미에 의한 종결이 더 많고, 문어에서는 잘 나타나기 어려운 접속어미, 문장 조각에 의한 의문문, 서술문의 실현이 많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김건희·권재일(2004)에서는 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문어와 구어에서 이들의 생략, 종류별 빈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²⁾ 이들 논의들의 공통점은 대개의 경우 독자적 구어의 문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구어는 문어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은 실제 구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어학에서 대화 자료의 분석과 함께 구어 문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밑줄 필자)

(권재일, 2003:26)

2) 다만 김건희·권재일(2004:5)에서는 구어의 계량적 연구가 문어와 구어를 균형 있게 포괄하는 한국어 문법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구어와 문어 문법을 포괄하는 문법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현숙(2009)는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구어 문법 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한국어교육 문법서들이 구어 문법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기술하고 있는지를 분석 비판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구어 문법 기술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문어와 별도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구어 문법 체계와 함께 구어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 구어는 문어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중략)... 구어 문법은 즉각적으로 문법에 맞는 구어를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법적인 규칙에 대한 지식과 사용을 위한 기술 발휘가 결합되는 언어 체계를 일컫는다.(밑줄 필자)

(지현숙, 2009:114)

목정수(2010)은 문어를 바탕으로 그 기본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문어 문법, 구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구어 문법이라고 규정하고, 구어 한국어의 문법 모형 제시를 위하여 한국어에서 다루어지는 몇 가지 언어학적 현상을 구어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았다. 목정수(2010)에서는 조사 ‘이/가’, ‘을/를’, 어미 ‘-(는)다’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기존의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설정했던 이들의 문법적 범주와 기능으로는 구어 자료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문어를 심층, 구어를 표층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구어 자료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 문법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구어 한국어의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틀이 기본이 되고 문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목정수(2010)의 구체적인 언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구어, 문어)를 더 기본으로 삼아야 할까? 필자의 답은 구어 한국어의 문법은 구분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이 둘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어체 한국어의 ‘어디 가니?’를 설명하는 설명들이 기본이 되고 ‘철수가 학교에 간다’의 구조가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문장이 어떤 생성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어 통합 문법이 따라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밑줄 필자)

(목정수, 2010:115-116)

나. 구어와 문어가 갈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일한 설명 방식을 적용하여 풀어낼 수 있을 때에야 진정한 한국어 문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밑줄 필자)

(목정수, 2010:116)

(5)를 보면 목정수(2010)은 구어의 독자적 문법을 인정하나, 문어 문법 기술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인 통합 문법 체계의 구현을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는 구어를 대상으로 한 설명을 기본으로 문어에 나타난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구어 중심의 문법 접근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에서 다룬 논의들 대부분은 구어와 문어의 차이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구어와 문어의 자료상의 차이를 근거로 문어와 다른 구어 자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고유한 구어 문법 존재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구어 문법을 주장하는 이러한 논의들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구어와 문어라는 자료적 차이가 실제로 구어와 문어 각각의 독자적인 문법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3. 구어와 문어의 문법이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

이 관점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개의 구어 문법 연구에서 견지되어 온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구어와 문어의 문법이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문법 체계의 문법 범주, 문법 단위를 구어에 적용하여 문법 현상을 기술하거나 해석하는 연구가 대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구어의 문법 현상과 문어의 문법 현상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크게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구어와 문어의 전반적인 문법적 특징을 비교한 연구로는 노대규(1989), 노대규(1996), 김미형(2004)를 들 수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구어와 문어에 나타나는 특정 문법 범주나 문법 현상이 구어와 문어에서 보이는 차이를 살펴본 연구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가. 문형 : 이소영(1996), 서은아(2004ㄱ,ㄴ), 서은아·남길임·서상규(2004)
- 나. 조사 : 박석준·남길임·서상규(2005), 김창섭(2008)
- 다. 어미 : 박석준·남길임·서상규(2005), 이은경(1999)
- 라. 지시어 : 신지연(1993)
- 마. 부사 : 김혜영(2009), 신지연(2002ㄱ,ㄴ)
- 바. 인용문 : 이기갑(2002), 채숙희(2010)
- 사. 흥내말 : 박동근(2004)

아. 접속 : 전영옥·남길임(2005), 남길임(2006), 전영옥(2007ㄱ, 나, 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의 문법 연구가 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구어의 문법을 적극적으로 기술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7)³⁾ 가. 이 연구는 지금까지 문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문형 연구를 실제 언어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나. 결과적으로, ...중략... 이들 두 텍스트 사이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차이점의 존재는, 한국어 구어에 대한 체계적인 문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 이 논문에서는 명사연속구 형성과 '의'의 문법이 문어와 구어 간에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의'의 문법을 탐구하였다. (밑줄 필자)

'구어의 문법'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들 연구가 명시적으로 '구어 문법'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법을 구어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연구의 중심이 되는 '구어/문어, 구어/문어(중심) 문법'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와 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나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3) 이 부분은 (6)에서 언급된 논의들 중에서 '구어 문법'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한 부분을 가져온 것으로 (가), (나), (다) 각각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고 ‘구어’를 문법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와 더불어 구어를 위한 문법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구어 문법’을 주장하면서 일차적으로 구어가 무엇이며 구어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된 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실제로 ‘구어/문어, 구어/문어(중심) 문법’이라는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구어 문법 연구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어와 문어를 매체의 차이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문체의 차이로 접근하는 관점도 있는데 (서상규·김형정 2005 참고) 만약 구어와 문어를 문체의 차이로 접근한다면 ‘구어와 문어의 문법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구어와 문어의 차이는 동일한 언어의 문체적 차이이므로 하나의 문법이 문체적 특성 때문에 그 실현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구어와 문어의 문법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6)에서 제시한 연구들 가운데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고민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 속하는 많은 연구들이 ‘구어 對 문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언어 전달 매체의 측면에서 언어는 크게 ‘구어’와 ‘문어’로 나뉜다. 그러나 같은 ‘구어’나 ‘문어’로 분류되는 많은 언어들이 그 안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상 대화’와 ‘연설’은 구어로 분류될 수 있고 ‘인터넷 블로그’와 ‘학술 논문’은 문어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들 각각은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닌다. 즉 어떤 자료들을 ‘구어’, ‘문어’로 크게 구별한다고 하더라도 구어 내 혹은 문어 내에서 각각의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자료들을 일괄적인 ‘구어’, ‘문어’라는 테두리에 묶어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한편, 구어와 문어 문법이 동일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개의 구어 연구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기존의 문법 연구는 문어 중심이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수용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구어와 문어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자 했던 기존 논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구어 문법 연구를 지향하는 논의들에서 ‘기존의 문어 중심 문법 연구의 탈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에서 나온 문법 사실들이 순수하게 ‘문어를 중심’으로 한 문법이었는가? 만약 기존의 문법들이 문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문어 내의 어떠한 문어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법이었는가? 이러한 질문은 구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⁴⁾ 이렇게 간단하게 제기되는 의문들조차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어 문법’이라는 말은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고보다는 단순히 구어 연구를 강조하고자 하는 정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2장을 통해 구어 문법 연구 현황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는 구어가 문법 기술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문어와는 다른 구어만의 독자 문법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구어와 문어의 문법은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한다. 2.3.에서 강조하였듯이 ‘구어, 문어’, ‘구어 문법, 문어 문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구어를 문법 연구 대상으로 삼는 방향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어와 문어 문법을 바라보는 본고의 이러한 시각을 좀 더 간명

4) 같은 문어라도 신문과 인터넷 댓글이 보이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같은 구어라도 대화와 연설이 보이는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게 나타내기 위해 3장에서는 구어와 문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 요구되는 문법의 통합적인 입장 정리를 하고, 이러한 입장 정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III.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한 방향 정립

2장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구어 문법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많은 경우 그동안의 문법 연구가 문어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비판하고 구어를 반영한 문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상당수 많은 연구들은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어의 문법과 문어의 문법이 별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구어와 문어 자료를 아우르는 문법 기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철학을 밝히지 않은 채 구어와 문어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들의 차이와 빈도, 사용 양상 등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서는 먼저 구어와 문어의 개념 정리와 함께 이를 지향하는 문법관을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3.1.에서는 구어 연구에서 흔히 언급하고 있는 기존 문법이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어 문법이라는 비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문어 문법’에 대해 살핀다. 또한 일부 논의에서처럼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이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에서는 이 논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구어, 문어 통합 문법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기술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3.1. 문어 문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기존 문법과는 다른 구어 문법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많은 논의들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었던 점은 기존 문법이 '문어 중심의 문어 문법'이라는 것이다.

(8) 그 동안 국어의 구조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 대부분의 연구는 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어 중심의 국어 연구는 실제 사용되는 구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현대국어의 통합적인 모습을 조망하기 어렵다.(밑줄 필자)
(구현정, 2005:4)

(9) 지금까지 국어학에서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 문어를 중심으로 삼아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것은 규범언어(혹은, 표준어) 중심적 사고와 생성문법의 이론적 영향으로 이상적인 언어 체계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구어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도 있다. 그러나 구어는 문어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은 실제 구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밑줄 필자)
(김건희·권재일, 2004:2)

(8)과 (9)에서는 문어를 문법 기술의 대상으로 삼아 왔음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법 기술 태도에 변화를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기존의 문법 연구가 순수 ‘문어’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다음은 전통적인 국어학 문법서들에서 문법 기술을 위한 대상을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10) 가. 이 책은 오늘날에 실제로 쓰이는 입말과 글말의 본을 풀이한 것이다.(밑줄 필자)

(최현배, 1937/1971: 일러두기)

나. 부러뜨린 말은 개별적이오 순간적인, 무한의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갈무리된 말은 사회적이오, 지속적인, 유한의 세계이기 때문에.....이것을 언어학의 제일차적인 연구 대상은 갈무리된 말에 놓여지며.....갈무리된 말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러뜨린 말의 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음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밑줄 필자)

(허용, 1997:24)

전통적 문법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어 문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문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10가)에서 보듯이 실제로 쓰이는 입말(구어)과 글말(문어)을 통해 국어 문법의 온전한 체계를 세우려 했고, (10나)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개념의 부러뜨린 말을 실제 사용된 갈무리된 말의 해석을 통해 깊이 있는 우리말과 글의 연구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법 설명에 있어 구어와 문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현대 이르러 생겨난 새로운 경향이 아니라는 점과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존 문법이 ‘문어 중심’의 문법 기술이었다는 명제에 대한 비판이 옳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어 문법이 주로 문어 중심의 문법이었다면 과연 기존의 문법서에서 기술 대상으로 했던 것이 과연 문어에 한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 문법서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보자.

(11) 가.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나. 자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한 마디 하께.
(임흥빈·장소원, 1995:130)

(12) 가. 일이 쉽지가 않아.
나. 그 일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임흥빈·장소원, 1995:147)

(13) 가. 철수가 지금 어디 있을까?
가. 서울(에).
나. 나는 어제 비로소 영수를 만났다.
나. 나도.

인칭 대명사 '우리'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하고 있는 (11)의 예나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어 결합할 수 있음을 보이는 (12)와 같은 예문들은 문어 자료인지 구어 자료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특히 (13)과 같은 대화 예문은 구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문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렵다. 이와 같이 문어 중심의 문법을 기술하고 있다는 대부분의 문법서들에서 인용되는 예문들은 구어와 문어 자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면 문어인지 구어인지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문장이 사용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14) 가. 너의 아저씨의 동생의 남편의 어머니의 사돈의 팔촌의 아들이 왔다.

나. 어제 내가 본 사람이 만난 친구가 데리고 온 소년이 읽는 책이 없다.

다.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 남편이 오늘 온다고 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이익섭·임홍빈, 1994:41)

(15) 가. 철수가 영희에게 동생을 웃게 하였다.

나. 철수가 영희에게 동생이 웃게 하였다.

다. 토요일에 영희는 일요일에 철수가 죽게 하였다.

라. 형은 동생이 웃게 했다

(이익섭·임홍빈, 1994:215-217)

(16) 가. 철수가 신문을 찢어 버리고 말았다.

나. 나는 그만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어 버리고 싶었다.

(남기삼·고영근, 1995:257)

(14)는 화자의 언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예문으로 문법적 적격성마저 의심이 간다. (15)는 수식 구조를 나타내거나(15가), 사동형이나 피동형을 설명하기 위해(15나) 제시된 예문들이고 (16)은 보조 용언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예문들인데, 이런 문장이 문어에서든 구어에서든 실제 사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된다.

이와 같이 문법서들에서 들고 있는 예문들이 구어인지 문어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나치게 어색하여 실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이유는, 기존의 문법서들에서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인 자료들이 실제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가상

의 언어, 가상의 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존 문법이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진술은 단순한 인상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문어 문법’이란 위와 같은 기존 문법서에서 발견되는 문법이 아닌, 실제의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법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어를 바탕으로 한 문법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어가 구어만큼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 문어 자료의 언어가 그렇게 획일적이며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다양한 문어 자료에 나타난 언어의 모습을 보인 예들이다.(밑줄 필자)

(17) 가. “이걸 보렴. 지구에는 많은 나라가 있단다.”

삼촌이 말했어요.

“이모가 사는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지구의를 돌리며 물었어요.

“여기 뉴질랜드. 아주 먼 나라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는 어디예요?”

나는 가장 먼 나라가 궁금했어요.

(동화: 임정진, 지구에 구멍을 뚫어요 中)

나. 엄마랑 아빠는 호미 들고 밭매러 가고, 돌이랑 복실이
랑 집을 봅니다.

“아이, 심심해.”

‘속속 삭삭’, ‘매엠 매엠 스프르르.’ 매미들만 귀 따갑게 울어 댁니다.

(동화: 이태수, 심심해서 그랬어 中)

(17)은 문어의 하나인 동화의 한 장면을 가져온 것이다. 흔히 구어 자료의 특징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어미 '-단다, -요, -지' 등의 쓰임이 자연스럽고, 어미의 생략이나(여기 뉴질랜드.) 축약된(그림) 형태들의 쓰임도 일반적이다.

(18) 카드사 경쟁 과열 '카드대란' 악몽 되살리나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음에도 올해 주요 카드사들의 시장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카드사 현금대출 관행과 회원 쟁탈 경쟁이 제어되지 않은 채 금리 상승기와 경기 체기를 맞게 되면 수년 안에 카드발 가계버블 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겨레, 2011. 01. 12. 경제면)

(19) 前項의 債務가 法律行爲를 目的으로 한 때에는 債務者의 意思表示에 加함할 裁判을 請求할 수 있고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하지 아니한 作爲를 目的으로 한 때에는 債務者의 費用으로 第三者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법조문: 민법 389조)

(20) ○○○는 감기 증상에 필수적인 비피린계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기관지확장제, 대뇌피질흥분제를 기본으로 하고 중추성 진해작용의 약효와 안전성이 공인된 Cloperation이 배합되어 있으며, 특히 소염, 중창완해 및 농즙, 점액용해, 거담작용을 겸한 소염, 진통, 단백분해 효소제인 Serrtiopeptidase가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 B1, B2를 첨가함으로써 감기로 인해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치료효과를 증대시킨 여러 감기증상의 제거에 매우 효과적인 처방제입니다.

(의약 제품설명서)

(18)은 신문, (19)는 법조문, (20)은 설명서의 일부로서 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사의 쓰임이나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들을 살필 수 있는 전형적인 문어로 파악되는 예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자료들이 조사나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사용에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18)과 같은 신문의 경우에는 명사구의 쓰임이나 파생어 복합어 등이 다른 문어 자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19)와 같은 법조문은 한자와 함께 상당히 복잡한 문장 구조를 지니며 (20)과 같은 설명서의 경우는 (18), (19)와 달리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하는 문장 구조 및 어미 사용이 많이 나타난다.

(21)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의 그림자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의 심성과 생활환경이 말할 수 없이 황폐화 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재앙이다. 흙과 물과 나무와 공기와 햇볕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그와 같은 고마운 자연을 끊임없이 허물고 더럽힌다..... 현재와 같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봄이 와도 꽃이 피어나지 않고 새들도 찾아들지 않을 것이다. 꽃이 피지 않고 새들이 떠나간 땅이라면 얼마나 적막하겠는가. 그런 곳에서는 생물인 인간도 살아갈 수 없다.
(법정, 새들이 떠나간 숲속은 적막하다. 서문 中)

(21)은 수필집의 서문 내용이다. 수필집은 그 성격상 종결 어미는 대부분 '-다'를 사용하고, 개인적 성향에 따라 긍정과 부정 표

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술어 선택에 있어 다른 문어 자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 문어라도 그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하여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문법 기술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확실적이고 정형화된 예문만을 대상으로 기술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본고는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비판을 해 오던 '기존의 문법 연구는 문어 중심이다'라는 명제에서 기존 문법 연구 사실들이 순수한 '문어 자료 중심'의 사실들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와 문어 자료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없는 일반적인 언어 자료들을 통해 기술되거나 혹은 머릿속에 내재된 추상화된 개념의 언어를 문법 기술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음을 살폈다. 또한 문어 자료 역시 그 사용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지니며 각각의 사용역에 따른 문법적 특징이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진정한 '문어 문법'은 다양한 사용역에서 나타나는 문어 자료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 문법 기술이 수행될 때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3.2. 구어만의 문법이 따로 존재하는가?

앞서 기존의 문법 기술이 문어 문법 혹은 문어 중심의 문법이라고 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구어에만 적용되는 독자적 문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22) 가. 형태소, 품사 분류

나.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 다. 단어형성원리-파생법, 합성법
- 라. 문장의 구조
- 마. 문장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 바. 부정, 피동, 사동, 서법, 시제, 동작상, 높임법 등
- 사. 문장의 확대-이어진 문장, 안은문장

(22)는 기존의 문법서들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개략적인 목차이다. 구어의 독자적 문법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법 체계, 문법 범주 등은 이른바 ‘문어 중심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구어 연구에 적용되지 않을 것들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구어라고 해서 문어와 달리 ‘체언’과 ‘용언’의 구별을 할 수 없다거나 ‘주어’와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을 설정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어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구어만의 독자성’을 강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vs. ‘칭취자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위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구어체의 자연스러운 문장과 문어체의 명제 중심적인 작례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더 기본으로 삼아야 할까? (밑줄 필자)
(목정수, 2010:115)

목정수(2010)에서는 구어 한국어를 위한 독자적 문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일종의 문체의 차이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구어와 문어를 ‘문체의 차이’로 본다면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자연스러움’의 차이는 사실 문법의 차이라기보다는 발화가 진행되는 맥락 및 환경 즉, 사용역(register)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디제이가 일반적인 ‘라디오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두 시의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연설’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러한 발화는 매우 자연스럽다. 즉 목정수(2010)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체는 단순히 ‘구어’, ‘문어’라는 이분법적인 차이로 접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어와 문어에 각각 내재하는 문법의 차이라고 보기에 는 더더욱 어렵다.

구어와 문어를 문체의 차이로 보는 관점이라면 인터넷 상의 언어는 ‘구어’인지 ‘문어’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진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다.

(24)



문법공부 하려는데 영단기 문법 어때요? [20]

75peunsl | 2010.12.29 13:17

제가 문법 실력 왕초보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아주 자세한 문법까진 아니여두 기본적인 문법실력 가지려면
 도대체 문법을 몇개월동안 공부해야 되는거죠??
 공부해야할 문법 양도 엄청 많은데 ㅠ ㅠㅠ

저희 얼마도 단어랑 문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만 잘해도 영어공부 쉽게 할수있다고 해서서
 강 엄마가 학원보내주면 좋는데 어떻게 공부할건지 알아오라고 해서
 좀 봤는데 영단기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네염
 그래서 문법 공부에 대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익껏 답해주시거 꼭 문법 잘하시는 분이 답변 해주세요

만약,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을 강조한다고 하였을 때 (24)와 같은 자료도 독자적 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실상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인터넷 언어(이하 웹언어

어)'도 문법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어와 구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매우 복잡한 특성을 보이는 '웹언어'에서 오히려 기존의 문법적 사실로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웹에서의 언어 전달 수단은 일차적으로 키보드를 통한 타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웹에서는 '이모티콘'이 중요한 언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웹언어에서는 '이모티콘'을 하나의 언어 단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키보드'라는 언어 전달 수단을 문법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는가? 이는 다소 지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지나친 입장도 수용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에서의 문어, 신문에서의 문어, 학술 논문에서의 문어 등 다양한 성격의 문어들이 각각 독자적인 문법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용해야 할 문법은 구어 이외에도 매우 다양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인데 독자적 문법이 이렇게나 다양해진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일이다.⁵⁾

권재일(2002, 2003, 2004)에서는 일관되게 구어만의 문법 체계를 강조하면서 구어에서의 '의향법' 실현이 문어와는 다르고 특히 현대 한국어 의문문 실현 방법의 언어 유형론적 특성이 굴곡적 방법과 함께 음운적 방법과 어휘적 방법의 비중이 높은 언어라는

5) 이러한 비판은 목정수(2010)에 대한 본고의 오해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목정수(2010)은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어를 아우르는 '문법 모델'을 주장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목정수(2010)은 유혜원(2009)와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어 한국어'라는 용어나 목정수(2010)의 논의를 자세히 파악해 보면 목정수(2010)은 일차적으로 구어만의 문법 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을 보자.

- (25) K : 밥은?
S : 무슨 밥?
K : 아니, 먹었냐고?
S : 아니, 아직.
K : 그럼 지금 먹으러 갈래?

(25)는 인터넷 채팅의 한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인터넷 채팅을 구어의 한 가지로 보려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25)의 상황에서는 음성적인 '억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즉 (25)의 밑줄 친 부분이 '의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음표'라는 문장 부호 때문인데, 이때 '물음표'는 사실상 구어에서의 '억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문어에서는 '억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굴곡적 방법에 의해서만 의문문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논의에서 얻은 결론이 구어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물론 '신문'이나 '학술 논문'과 같은 문어에서는 억양에 의한 의향법의 실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억양에 의한 의향법의 실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러한 의향법 실현 방법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장르적 특성, 문체적 특성에 비추어 어색해짐을 이르는 말이다.

- (26) 김 씨하고 박 씨가 공범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26)의 예가 신문에서 나왔다면 매우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신문이나 소설이나 학술 논문 등 어디에 나오든 의심의 여지없이 (26)은 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26)과 같은 이른바 구어의 특징적인 문장이 신문에서는 비문법적이 되고 구어에서는 문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문이라는 매체적 특성상 맞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를 과연 구어와 문어의 문법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구어와 문어 문법의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펴며 예를 들고 있는 목정수(2010)의 견해도 사실상 동일한 문법 아래에서의 실현 양상의 차이로 이해된다.

(27) 가. (제가) 할게요 (1인칭)

나. 엄마가 해 줄게 (1/3인칭)

다. 오늘은 임동훈 선생이 쓸게(3/3인칭 > 1/3인칭)

라. 목정수 님~ 돌아누우실게요(3/3인칭 > 2/3인칭 → 1/3인칭)

(목정수 2010:112)

목정수(2010)에서는 (27)의 문장들이 구어에서 어떻게 문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자세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27다, 라)⁶⁾의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고 구어라는 상황 맥락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늦게 귀가하는 아들에게 빈정거리는 말투로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네.”라고 말했다 때, 이 문장은 ‘-시-’라는 선어

6) 목정수(2010)에서 (27다)는 필자 자신이 농담 삼아 자주 하는 말이고 (27라)는 필자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구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수반되는 구어라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구어라도 매우 이질적일 수 있는 구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구어와 문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부정되는 것이다.

말어미의 문법적 특성과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사용 환경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언어 현상마저도 ‘-시-’가 지닌 문법의 하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수많은 언어 사실도 문법 기술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 (28) 가. 선배님들, 이열 횡대로 줄 맞추어서 걸으시겠습니까?⁷⁾
나. 그런 애들 있잖아. 맨날 땡땡이치고.
다. 돈은 챙겼 아니아니 깎았지?

(28가)는 언표내적으로 ‘명령’의 힘을 지니고 있다. ‘명령’을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평서문’과 선어말어미 ‘-겠-’을 이용하고 있다. (28나)는 ‘맨날 땡땡이치고’가 ‘그런’을 보충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구성이고 (28다)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어말어미 없이 용언이 문장 내에 실현된 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를 명령형 어미에도 포함시킨다거나 관형어는 후행하는 문장으로 명세화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고 기술한다거나 혹은 어말어미 없이도 용언은 문장 내에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28)과 같은 예들을 핵심에서 떨어져 있는 문법 현상 내지는 문법 외적 현상이라고 보고 기존의 문법 사실을 중심으로 이들의 발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⁸⁾

7) 이는 예비군 훈련장 조교들의 발화이다. 이러한 발화가 언표내적으로 명령의 힘을 지니는 것은 일반적인 발화가 아니라 훈련소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예들과 같은 매우 특수한 맥락을 중심으로 한 발화를 토대로 문법을 과연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8) 물론 이때 그 발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그리고 그 많은 상

한편, 구어의 독자적 문법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주장되기 시작했는데, 지현숙(2006, 2007, 2009), 최정순(2006)에서는 일관되게 한국어 교육에서의 '구어 문법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주장하는 '구어 문법 능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법 지식'이나 '문법 능력'이라기보다는 '구어'가 발화될 때의 맥락을 고려한 실제적인 언어 사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이들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어 문법 그 자체보다 구어적인 환경을 강조한 언어 교육이다. 이는 해당 언어 사용 환경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것일 뿐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1.에서 논의했듯이 지금까지의 문법 기술은 실제로 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 절에서 논의했듯이 문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문어에 실현되는 문법의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어 또한 그러하다. 즉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을 강조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텍스트를 고려하여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독자적 문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여러 논의에서 구어만의 독자적 문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구어만의 문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된다.

3.3. 통합 문법 기술의 관점

3.1.과 3.2.를 통해 본고에서는 문어 문법으로 오해했던 기존의 문법은 사실 문어 문법이 아닌 우리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문법

황과 환경을 체계화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을 기술하려 했던 것이며, 문법이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으로 각각 분리되어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요약하자면 본고는 ‘구어’와 ‘문어’라는 차이를 인정하지만 ‘구어’와 ‘문어’라는 이분법적 구분만으로는 문법 기술이 무의미하며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이라는 이분적 구분을 부정한다.

그렇다면 구어와 문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구어 문법, 문어 문법이라는 구분을 부정한 상황에서 본고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통합 문법 기술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구어와 문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다.

구어가 무엇이나 문어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기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문체에 대한 관심과 구어 연구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관점으로써 구어와 문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구어’와 ‘문어’는 어떤 텍스트의 문체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고, 음성 언어인가 글로 쓰인 텍스트인가를 가르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 가지 용어가 두 가지 개념을 지시하는 혼란을 지적하며 장소원(1986)에서는 언어를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로 유형화하였다. 구현정·전영옥(2002)에서도 역시 문체와 자료체적 의미로서의 ‘구어’와 ‘문어’를 구별하여 언어 자료의 유형을 ‘구어, 문어적 특징을 지닌 구어, 구어적 특징을 지닌 문어, 문어’로 구분하였다. 장경현(2003)에서도 구어는 ‘음성 텍스트’, 문어는 ‘문자 텍스트’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구어체, 문어체’라는 지시성의 모호함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에 일견 ‘구어’, ‘문어’의 개념에 대한 정리는 현재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구어 연구’ 대상으로서 ‘구

어'를 규정할 때 구현정·전영옥(2002)과 김미형(2004)에서의 입장과 같이 구어적 성격을 가진 문어까지도 구어 연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들의 논의에서 문체와 그 자료적 측면에서의 구어를 혼동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그 연구 대상으로 해야만 구어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어적 성격을 지닌 문어까지도 포괄하여 '구어'로 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어의 본질을 밝히고자 구어적 특성을 지닌 자료를 구어 연구 대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구어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은 이미 구어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전제하고 연구 대상 자료를 그 기준에 따라 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구어'를 규정할 경우, 구어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자료에 접근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어적 특성'에 대한 판단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만화 텍스트는 흔히 구어적 특징이 많은 자료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화'는 구어 연구의 대상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만화에는 구어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낸 언어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언어 자료들이 과연 구어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실제 만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헉, 허걱, 헐...' 등과 같은 많은 의성어, 의태어들을 보면 사실 일상 대화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만화'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구어적 상황에서 쓰인 자료들에 대해 이를 텍스트가 구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만화'라는 단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구어적, 구어성, 구어적 특징'이라는 말은 텍스트마다 그 적용이 매

우 모호할 수 있다.⁹⁾ 만약 구어적 성격을 가진 텍스트를 구어 연구 대상인 '구어'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매번 어떤 텍스트를 대할 때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구어적 특성을 지닌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하며, 이 자료가 '구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계속하여 자신 없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구어와 문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어와 문어를 '자료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입에서 나오면 구어로, 글로 쓰인 것이면 문어로 본다는 접근이다.¹⁰⁾ 구어와 문어를 이렇게 규정하면 어떤 자료가 구어인지 문어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해진다. 이러한 접근은 구어의 특성이 무엇이며, 문어의 특성이 무엇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견 없이 구어와 문어의 연구 대상을 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9) '구어체, 문어체'의 용어가 가진 모호성에 대해서는 장경현(2003)에 잘 정리되어 있다.

10) 이에 대해서는 실제 음성 자료를 문자로 전사한 것은 구어가 아니라 문어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당연히 그러한 자료는 구어 자료가 된다. 방송이나 연극 등을 위한 대본은 구어를 상정하고 있지만 구어로 발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어가 아니라 문어인 것이다. 반대로 매우 격식적인 글이라도 그것을 발화하고 그 발화한 내용을 전사한 것이라면 그것은 구어 자료가 된다.

실제 언어 자료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양자의 성격을 두루 지닌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본고에서는 구어/문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자료체적 관점에서 구어와 문어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구어와 문어는 말로 한 것이냐 글로 쓰인 것이냐의 차이를 가질 뿐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화, 인터넷 댓글'은 구어와 문어라는 매체의 차이를 가지지만 기존 논의에서처럼 이것이 구어에 가깝냐, 문어에 가깝냐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는 '대화, 인터넷 댓글'이라는 사용역의 차이로 접근하고 그러한 사용역의 차이의 한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용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 양상들에 실질적이고 정밀한 기술을 통해 구어 중심 혹은 문어 중심 등과 같은 자료 성격의 규명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어와 문어를 자료체적으로 접근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일종의 사용역(register)¹¹⁾의 차이로 보려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구어·문어 통합 문법 기술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의 문법 특징에 대한 차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구어와 문어는 사용역의 차이로 인해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어는 억양이나 휴지가 실현될 수 있고, 실시간 발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발화한다든지 수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 그 형식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문어는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며 문체상의 압력으로 그 형식이 온전할 것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사용역의 차이로 인한 구어와 문어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2.3에서 언급한 많은 구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구어와 문어를 대상으로 문법 기술을 할 때 과연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구어와 문어의 문법이 별개의 체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구어의 문법이 별개의 체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어와 문어에 나타나는 차이를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해야 하는가에 본고는 우리의 머릿속에 체계화되어 있는 문법이 단일하게

11) 이 연구에서 사용역은 Biber, D., Conrad, S., Reppen, R.(1998:135)에서 규정한 개념을 말한다. Biber, D., Conrad, S., Reppen, R.(1998:135)에서는 사용역을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적, 주제, 환경, 상호작용성, 방법 등에 따라 사용역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역'은 어느 특정 소설가의 소설이나 생물학 분야의 연구 논문처럼 구체적인 맥락이 좁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대화나 학생들의 작문과 같이 좀 더 일반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존재하고 구어 혹은 문어에서의 사용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즉 어떤 언어의 사용역이 입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인가, 글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상황인가에 따라, 혹은 구어 상황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상호 작용이 가능한 대화의 상황인가, 상호 작용이 불가능한 연설과 같은 상황이나에 따라 문법 구조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문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문어에서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로서 종결어미와 마침표로 실현된다. 문어에서 문장은 동사와 그에 따른 논항을 갖추고 구체적인 표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식별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구어는 ‘문장’의 식별이 쉽지 않다. 종결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발화가 끝날 때도 있고, 문장으로서 완결되지 못한 형태가 발화의 단위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발화의 종결 형태도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역으로 문어에서 문장의 식별이 분명한 것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는 언제나 동사와 그에 따른 논항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마침은 종결어미와 문장 부호로 나타나야 한다는 문어 사용역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구어의 경우 하나의 완결된 의미가 실현되는 형태에 대한 요구가 문어에서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그 의미가 대화 상호간에 통하기만 하면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완결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어의 ‘문장’에서 요구되는 완결된 형식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그 언어 사용 상황에 따라 문장이라는 완결된 의미의 실현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문어의 경우 완성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구어의 경우 여러 가

지 맥락에 따라 생략이 자유롭고 억양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 의미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장’이라는 것이 과연 문어에서만 유효한 개념인가? ‘문장’을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화된 단위’라는 기능상의 접근으로서 정의한다면 이러한 ‘문장’이라는 개념은 구어에서도 문어에서도 유효한 개념이 된다.¹²⁾ 문어의 경우, 자료의 특성상 완결된 형식을 요구하고, 또한 문장 부호의 사용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서술어와 그가 요구하는 논항이 모두 갖추어진 완결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반해 구어의 경우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결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구어에서는 여러 가지 구어의 상황, 즉 기억력의 한계, 실시간으로 발화해야 하는 압박, 수정 불가능, 생략의 허용 등등에 의해 온전한 형식이 깨져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마친 형태나 연결어미로 마친 형태 모두가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구어에서도 문어와 같이 완결된 형식의 문장의 실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머릿속의 문법에는 기능상의 ‘문장’이 전제되며 그 사용 환경에 따라 온전한 형식을 갖추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면서 ‘문장’이 사용역 간에 드러나는 양상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

12) 이렇게 문법의 주요 단위를 기능상으로 정의하고 기술하는 태도는 기능 문법적인 접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능 문법적 관점에서 영문법을 기술하고 있는 Givon(1993)에서는 문장을 명제 정보가 부호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문장’을 그 기능상으로 접근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13) 이에 문어에 버금가는 구어의 기본 단위를 ‘문장’이 아닌 ‘억양 단위’나

이에 본고는 구어와 문어 통합 문법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즉, 구어와 문어 문법이 서로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법을 근간으로 하되 이러한 구어와 문어 문법이 사용역에 따라 실현 양상의 차이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구어와 문어 상호간의 문법 구조의 사용 양상의 차이를 기술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법 기술 방향은 구어와 문어와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들과 상반되는 전혀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¹⁴⁾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많은 구어 연구들은 특정한 문법관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들 기술은 거의 대부분 구어와 문어의 사용역 간 문법의 사용 양상의 차이를 연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의 문법 기술 방향과 동일하게 구어와 문어를 하나의 사용

‘절’, 혹은 ‘C-단위’ 등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때 구어 기본 단위 설정에서 논의되어 온 구어의 기본 단위들이 구어 자료 분석을 위한 단위이지 문법의 단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바탕으로 구어의 독자적인 문법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14) 지금까지의 문법 연구들이 실제로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통합 문법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가라는 심사자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문법 연구에 있어서 ‘구어’와 ‘문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는데, 본고가 강조하고 있는 문법 기술의 접근은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전통적으로 국어 문법 연구는 형식 중심의 접근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식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는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문법 기술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구어와 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 실현 양상의 차이를 포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령,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은 문어나 구어 모두 과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어떤 유의미한 사실을 발견해 내기는 어렵다. 반면에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과거 시제’라는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어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떠한 형식이 쓰이고 있고 문어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를 해당 사용역의 특징과 화용적 맥락 등을 통해 분석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구어, 문어의 통합 문법 기술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문법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역으로 보고 문법 전반에 걸쳐 그 구조와 사용 양상을 기술한 문법서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Biber 외(1999)가 그것인데, 여기에서는 상호성, 분야, 대화목적, 주제 등을 고려하여 크게 사용역을 대화, 소설, 신문, 학술 논문으로 나누어¹⁵⁾ 이들 각각의 사용역별로 문법 구조의 사용 양상을 기술하고, 사용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언어적 비언어적 요인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Biber 외(1999)의 이러한 문법 기술 방식은 앞으로 국어에서의 구어·문어 통합 문법 기술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 품사, 구조적 패턴, 구, 절 등등의 범주들이 사용역별로 어떠한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 자료를 통한 구어와 문어의 통합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 연구에서 문법 구조가 구어와 문어의 사용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구어와 문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다만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기에 기존의 문법 기술의 틀로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기능 문법적 관점¹⁶⁾으로 문법 현상을 기술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어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구어의 여러 간투사¹⁷⁾의 경우, 이러한 간투사는 주로 비절요소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품사별로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5) Biber 외(1999)에서 사용역을 크게 신문, 소설, 대화, 학술적인 글의 4가지로 나눈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상호성, 분야, 대화목적, 주제 등을 고려하여 나눈 것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용역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사용역 간 차이로 인해 문법의 사용 양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각주 14) 내용 참고.

이러한 부류들의 경우에는, 기능상으로 크게 상위의 하나의 범주로 묶고 다시 그 안에서 이들의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예로 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휴지가 구어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문법 범주를 나누는 틀로는 이에 대한 문법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휴지(pause)’ 형태들의 문법적 기능을 기능상 하나로 묶고 설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문법 기술에 있어서 실제 자료에 나타나는 양상을 기반으로 하여 문법 현상을 기술하게 되면 기능 문법적인 관점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구어와 문어에 나타난 여러 문법 양상을 기술하고 그것을 해석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언어 내적인 요소는 물론 언어 외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구어와 문어의 통합적 문법 연구의 목적은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역에 따른 문법적 현상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며 그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가 놓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때 언어가 놓인 상황이라 함은 우리가 전제한 텍스트 사용역 변인을 포함한 언어 사용자의 의도까지도 포함한다.

IV.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한 자료 구축 문제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2장과 3장에 걸친 논의를 통해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 기술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요컨대, 구어와 문어를 독자적 원리와 체계를 가진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하나

의 언어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변이로 이해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구어와 문어 상에서 나타나는 문법 실현 양상의 차이를 단순히 ‘구어’ 對 ‘문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발화 혹은 기술상에서 정도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용역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이러한 문법 기술의 좋은 예를 보이는 것은 앞서 제시한 Biber 외(1999)이다. 이 장에서는 Biber 외(1999)를 중심으로 본고에서 추구하는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한 자료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구축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앞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1.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한 자료 구축 방향의 예 -Biber 외(1999)를 중심으로

Biber 외(1999)는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영어 문법서로 담화 상황을 고려해 대화(conversation), 소설(fiction), 신문(news), 학술산문(academic prose)이라는 각각의 사용역(register)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분되는 텍스트를 모은 말뭉치를 이용하여 영어의 전반적인 문법적 자질(grammatical feature)의 실제 사용을 기술하고 있는 문법서이다. 문법 기술은 말뭉치에서 찾은 구조의 패턴과 사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Biber 외(1999)에서 사용역별 문법 기술을 위해 사용한 LSWE(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 말뭉치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1> LSWE 말뭉치의 전체 구성

| | 텍스트의 수 | 단어의 수 |
|--------------------------------|--------|-----------------------|
| 주요 사용역 | | |
| 대화(BRE) | 3,436 | 3,929,500 (약 400만 단어) |
| 소셜(AME & BRE) | 139 | 4,980,000 (약 500만 단어) |
| 신문(BRE) | 20,395 | 5,432,800 (약 540만 단어) |
| 학술산문(AME & BRE) ¹⁷⁾ | 408 | 5,331,800 (약 530만 단어) |
| 방언 비교를 위한 미국 영어 텍스트 | | |
| 대화(AME) | 329 | 2,480,800 (약 250만 단어) |
| 신문(AME) | 11,602 | 5,246,500 (약 525만 단어) |
| 보충 사용역 | | |
| 대화가 아닌 구어(BRE) | 751 | 5,719,500 (약 580만 단어) |
| 일반 산문(AME & BRE) | 184 | 6,904,800 (약 700만 단어) |
| 총 말뭉치 크기 | 37,244 | 40,025,700 (약 4천만 단어) |

전체 말뭉치를 구성하는 각 사용역별 말뭉치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다소 길지만 본고의 자료 구축 방향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보이기로 한다.

(1) 대화 말뭉치의 구성

<표 2> BRE 대화 말뭉치에서의 화자 구성

| 연령대 | 여성 화자 | 남성 화자 | 총합 |
|--------|-------|-------|-----|
| 10세 미만 | 30 | 25 | 55 |
| 11~19 | 35 | 45 | 80 |
| 20~29 | 40 | 40 | 80 |
| 30~39 | 35 | 25 | 60 |
| 40~49 | 40 | 30 | 70 |
| 50~59 | 30 | 25 | 55 |
| 60세 이상 | 45 | 30 | 75 |
| 미상 | 15 | 5 | 20 |
| 총합 | 270 | 225 | 495 |

17) 여기서 AME는 미국영어, BRE는 영국영어를 가리킨다.

<표 3> AME 대화 말뭉치에서의 화자

| 연령대 | 여성 화자 | 남성 화자 | 총합 |
|--------|-------|-------|-----|
| 20세 미만 | 65 | 47 | 112 |
| 21~30 | 66 | 48 | 114 |
| 31~40 | 44 | 50 | 94 |
| 41~50 | 57 | 25 | 82 |
| 51~60 | 36 | 15 | 51 |
| 61세 이상 | 24 | 14 | 38 |
| 총합 | 292 | 199 | 491 |

(2) 소설 말뭉치의 구성

<표 4> 국가 변이에 따른 소설 텍스트의 분포

| 국가 변이 | 텍스트 수 | 단어 수 |
|-------|-------|-----------|
| 미국 | 41 | 1,095,200 |
| 영국 | 79 | 3,347,100 |
| 기타 | 19 | 537,700 |

(3) 신문 말뭉치의 구성

<표 5> BRE 신문의 화제 구성

| 화제 | 단어 수 | 화제 | 단어 수 |
|----------|-----------|----------|-----------|
| 주요범주 | | | |
| 예술 | 418,400 | 외국/국제 뉴스 | 1,156,100 |
| 비즈니스 | 542,800 | 사회 뉴스 | 501,300 |
| 국내/지방 뉴스 | 1,233,900 | 스포츠 | 1,218,700 |
| 기타범주 | | | |
| 건축 | 6,400 | 생활 | 8,300 |
| 자동차 | 1,400 | 자연 | 5,500 |
| 사실 | 68,900 | 부동산 | 3,500 |
| 교육 | 3,900 | 종교 | 10,300 |
| 패션 | 5,400 | 왕족 | 31,500 |
| 음식 | 14,100 | 과학, 기술 | 16,600 |
| 월예 | 2,100 | 타이틀 | 21,600 |
| 건강 | 28,100 | 여행 | 93,700 |
| 법률 | 39,900 | | |

<표 6> AME 신문의 화제 구성

| 화제 | 단어 수 | 화제 | 단어 수 |
|----------|-----------|----------|---------|
| 주요범주 | | | |
| 예술/오락 | 325,000 | 국제무역 | 260,000 |
| 비즈니스/경제 | 1,545,000 | 정치 | 350,000 |
| 국내/지방 뉴스 | 995,000 | 법률 | 260,000 |
| 외국/국제 뉴스 | 680,000 | 스포츠 | 260,000 |
| 기타범주 | | | |
| 광고/마케팅 | 15,000 | 주택/소비자상담 | 25,000 |
| 사설 | 105,000 | 노동/직장 | 35,000 |
| 교육 | 90,000 | 군사 | 50,000 |
| 음식/와인 | 50,000 | 종교 | 50,000 |
| 건강 | 35,000 | 과학/의약/기술 | 95,000 |
| 역사 | 30,000 | 날씨 | 35,000 |

(4) 학술산문 말뭉치의 구성

<표 7> 학문 분야별 학술 서적의 구성

| 주제 | 텍스트 수 | 단어 수 |
|---------|-------|-----------|
| 건축학 | 4 | 179,000 |
| 생물학/생태학 | 6 | 190,200 |
| 화학 | 4 | 158,200 |
| 컴퓨터 | 8 | 269,300 |
| 교육 | 7 | 225,700 |
| 공학/기술 | 7 | 185,700 |
| 지질학/지리학 | 4 | 152,200 |
| 법학/역사학 | 5 | 184,700 |
| 언어학/문학 | 5 | 149,600 |
| 수학 | 6 | 216,600 |
| 의학 | 6 | 201,200 |
| 심리학 | 3 | 118,400 |
| 사회학 | 10 | 424,200 |
| 총합 | 75 | 2,655,000 |

<표 8> 학문 분야별 학술 논문의 구성

| 주제 | 텍스트 수 | 단어 수 |
|------------|-------|-----------|
| 건축학 | 2 | 78,700 |
| 인류학/고고학 | 9 | 152,100 |
| 생물학/곤충학 | 19 | 369,100 |
| 화학/물리학 | 2 | 31,700 |
| 컴퓨터 | 1 | 29,700 |
| 생태학 | 4 | 13,100 |
| 교육학 | 11 | 410,600 |
| 지질학 | 1 | 39,400 |
| 법학/역사학/정치학 | 5 | 189,200 |
| 언어학 | 2 | 58,800 |
| 수학 | 6 | 33,100 |
| 의학 | 257 | 752,000 |
| 간호학 | 2 | 75,200 |
| 심리학 | 3 | 124,100 |
| 사회학 | 9 | 320,000 |
| 총합 | 333 | 2,676,800 |

(5) 보충 사용역

보충 사용역에는 대화가 아닌 구어와 일반 산문이 포함된다. 대화가 아닌 구어에는 ‘강연(교실, 일반대중), 수업, 계획 발화, 설교, 의식(종교, 결혼식 등), 법정 담화, 논쟁, 경매, 공적 회의, 사적 회의, 인터뷰, 진찰, 라디오 방송, 스포츠 중계, TV 방송, TV 다큐멘터리, TV 뉴스 보도’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다. 일반 산문에는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다양한 주제의 문어 자료가 포함된다.

위의 말뭉치 구성에서 보듯이 LSWE 말뭉치는 ‘대화, 소설, 신문, 학술산문’이라는 네 개의 주요 사용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사용역은 500만 단어 이상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용역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각 사용역의 대표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컨대, 대화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화자를 포함하고 있고 신문이나 학술산문의 경우는 다양한 주제, 학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대화, 소설, 신문, 학술산문’이라는 주요 사용역 구별이 한국어 자료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지,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유효한 사용역 구별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만¹⁸⁾ 다양한 구어, 문어 자료를 사용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4.2.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한 자료 구축의 문제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를 중심으로

앞서 Biber 외(1999)에서 사용한 자료들의 구축량과 그 사용역 구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 필요한 구축 자료의 양에 대한 문제와 이러한 자료들의 명확한 사용역 구별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방대한 구어 및 문어 성격의 자료를 새로이 구축하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므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미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18) 본고에서는 Biber 외(1999)에서 제시한 사용역 구별이 한국어 자료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고 한국어 문법 기술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사용역 구별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다양한 변이 양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나누어 보기 위한 수단이지 어떠한 이론적 산물은 아니다. 가능하다면 사용역의 구별은 세밀할수록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어 변이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사용역을 몇 개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한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Biber 외(1999)의 사용역 구별 방법과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온 국어 정보화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21세기 세종 계획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Biber 외(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역별 구분을 근간으로 이를 각 사용역 별로 재구성 하고¹⁹⁾,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1) 구어 말뭉치 : 전체 형태소 분석 말뭉치의 크기 805,646어절 (약 80만 어절)

| 사적 독백 | 강연/강의/연설 | 토론/회의 | 대화 |
|----------------|----------------|--------------|----------------|
| 123,111(약 12만) | 246,117(약 24만) | 53,234(약 5만) | 383,184(약 38만) |

(2) 문어 말뭉치 : 전체 형태의미분석말뭉치의 크기 11,443,305어절 (약 1122만)

| 신문 | 잡지 | 소설 | 학술적인 글 ²⁰⁾ |
|-----------------------|-----------------------|-----------------------|-----------------------|
| 3,428,030 (약 343만) | 1,338,984 (약 134만) | 3,229,510 (약 323만) | ?200만 이하로 추정 |

여기서 '학술적인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21세기 세종계획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 '학술적인 글'은 LSWE의 '학술산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21세기 세종 형태소 분석 말뭉치 중에서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대상으로 재분류해 본 것이다. 위의 (1)과 (2)에서 보인 자료가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뭉치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19) 이는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배포판(2007. 12.)의 1차 수정판(2009. 12.)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 학술적인 글로 분류하기 모호한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미 구축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 자료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사용역별 말뭉치의 불균형성 문제이다. 이는 기구축된 자료 현황 파악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주석 말뭉치의 주석 방법 및 체계의 문제이다. 문법 기술을 위해 필요한 말뭉치라면 그 말뭉치는 형태, 의미, 통사 층위의 주석이 달린 주석 말뭉치가 되어야 한다. 현재 21세기 세종 계획의 주석 말뭉치는 ‘형태분석말뭉치’, ‘형태의미분석말뭉치’, ‘구문분석말뭉치’가 존재하나 이들 이들 각각의 말뭉치는 문법 기술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몇 가지 문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2.1. 사용역별 말뭉치의 불균형성 문제

기구축된 자료 현황을 파악했을 때, ‘대화’와 ‘학술산문’이 ‘신문’과 ‘소설’에 비해 그 양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대화’와 ‘학술산문’은 새로이 구축되어보완이 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어 자료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성격을 띠지는 않는다. 즉 구어도 사용역에 따라 문법적 특징이 달리 나타나므로 모든 구어 자료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화’는 구어를 가장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자료로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서는 이를 구어의 주요 사용역으로 설정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구어에서 ‘대화’로 구축된 자료는 약 40만 어절에 불과하다. 화자의 수, 연령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LSWE 말뭉치에서 대화 말뭉치

가 약 400만 단어, 대화가 아닌 구어 말뭉치가 약 600만 단어로 전체 구어 말뭉치가 약 1,000만 단어에 이르고 있고, 모든 빈도 결과를 100만 단어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화자의 수, 연령대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60만 어절 이상을 보충하여 최소한 100만 어절 이상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¹⁾

‘학술산문’은 Biber 외(1999)에서 설정한 주요 사용역 중 하나로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과 학술 논문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말뭉치에서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형태의미분석말뭉치’가 약 200만 어절 정도가 있고 학술 논문은 전혀 없었다. 또한 ‘학술산문’에서는 학술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²²⁾

21) 구어 연구 전반에 걸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구어 문법에서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한 심사자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방언’도 일종의 언어 변이 양상이기에 넓은 관점에서 보면 본고의 범위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언’은 단순히 언어 자료에 따른 변이 양상과는 다른 ‘사회적, 지리적’ 변이 양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서 구어, 문어 문법에 초점을 맞춘 본고의 논의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현재로서는 방언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방언을 구어와 문어 문법 기술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방언’과 관련하여 구어 문법이 문어 문법과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변이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 문어 문법에 대한 연구 및 기술은 담화 문법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담화 문법’이라는 말을 쓰기에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본고는 담화, 화용론의 입장에서 문법을 수용하지는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법론의 입장에서 담화, 화용론을 수용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즉, 문법이 담화를 구성하는 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담화가 문법 요소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 기술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담화 문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담화 문법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그 중심은 ‘담화’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입장처럼 ‘문법’에 중심을 둔다면 ‘담화, 화용론을 고려한 문법’ 정도가 적당할 듯하다.

22) 주제의 다양성 문제는 ‘신문’에도 적용된다. 신문은 현재 적절한 양은 확

현재까지 말뭉치의 적정량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 자료는 ‘신문, 소설’(약 300만 어절)뿐이다. ‘학술산문’의 경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대화’의 경우, 문어 사용역보다 작게 100만 어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약 60만 어절이 부족한 셈이다. ‘학술산문’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원시 말뭉치와 입력되어 있는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화’는 60만 어절의 원시 말뭉치를 새롭게 구축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말뭉치의 크기²³⁾와 현재 말뭉치 상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사용역 | 예상되는 필요한 크기 | 기 구축 형태분석말뭉치 | 비고 |
|----------|----------------|---------------------|--------------------------------------|
| 대화 | 100만 어절 | 약 40만 어절 | 60만 어절 부족 |
| 소설 | 300만 어절 | 약 343만 어절 | . |
| 신문 | 300만 어절 | 약 323만 어절 | 화제 구성 비율 조정 필요 |
| 학술 산문 | 300만 어절 | 약 200만 어절 정도로 추정 | 학술 논문 말뭉치 보충 보완 학술 주제 구성 비율 조정 필요 |

4.2.2. 말뭉치의 주석 문제

문법 기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법적 정보가 주어진 주석말뭉치가 기본적이다. 현재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된 주석 말뭉치로는 ‘형태분석말뭉치’, ‘형태의미분석말뭉치’, ‘구문분석말뭉치’가 있는데, 현재 문법 기술에서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분석말뭉치’와 ‘형태의미분석말뭉치’에서 보여지는 문제부터 살펴보고 하겠다.

‘형태분석말뭉치’와 ‘형태의미분석말뭉치’는 아래에서 보듯이

보하고 있지만 다양한 화제를 균형성 있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말뭉치를 재분류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23) 이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잠정적인 결론이다.

‘형태’ 차원의 분석만 이루어져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 | |
|-------------------|----------|--------------------------|
| 9BTAA0165-000950 | 시간을 | 시간/NNG + 을/JKO |
| 9BTAA0165-000960 | 주어 | 주/VV + 어/EC |
| 9BTAA0165-000970 | 영어 | 영어/NNP |
| 9BTAA0165-000980 | 컴퓨터 | 컴퓨터/NNG |
| 9BTAA0165-000990 | 한자 | 한자/NNG |
| 9BTAA0165-0001000 | 노작활동시간노작 | 노작/NNG + 활동/NNG + 시간/NNG |
| 9BTAA0165-0001010 | 등을 | 등/NNB + 을/JKO |
| 9BTAA0165-0001020 | 운영하도록 운영 | 운영/NNG + 하/XSV + 도록/EC |
| 9BTAA0165-0001030 | 했다. | 하/VX + 았/EP + 다/EF + /SF |

위의 예에서 ‘노작활동시간’은 문맥상으로 볼 때 합성어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작+활동+시간’으로 분석되어 있고 ‘운영하다’와 같은 파생어도 ‘운영+하다’로 분석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진 말뭉치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론이나 단어형성법 연구에는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겠지만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통사론 연구에는 부적절하다. 예컨대, ‘단어’의 빈도를 산출한다고 하였을 때, ‘노작활동시간’은 하나의 명사로 그 빈도가 계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주석 체계에서는 ‘노작, 활동, 시간’이라는 세 개의 명사로 각각 빈도가 계산되고 ‘운영하다’는 동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운영’만이 명사로서 그 빈도가 계산되어 버린다. 현재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는 형태 차원의 분석과 단어 차원의 분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형태론’ 연구에서도 ‘통사론’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과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 따로 분리되어 두 개의 말뭉치가 한 세트에 구성되어 있는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형태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진 ‘형태론

석말뭉치'와 단어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진 '품사주석말뭉치'가 따로 분리되어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을 때에 앞서 문제로 제시된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다음은 '구문분석말뭉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법 기술을 좀 더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구문분석말뭉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된 '구문분석말뭉치'의 양이 굉장히 적어 이를 당장 활용하기는 힘들겠지만 향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 | | |
|-------------------------------|---------|---|----------------------------------|
| ; 막일을 기피하는 풍조는 건설 공사장뿐만이 아니다. | | | |
| (S | (NP_SBJ | (VP_MOD | (NP_OBJ 막일/NNG + 을/JKO) |
| | | | (VP_MOD 기피/NNG + 하/XSV + 는/ETM)) |
| | | (NP_SBJ 풍조/NNG + 는/JX) | |
| (VP | (NP_CMP | (NP 건설/NNG) | |
| | | (NP_CMP 공사장/NNG + 뿐/JX + 만/JX + 이/JKC)) | |
| | | (VP 아니/VCN + 다/EF + ./SF)) | |

위의 예에서 보듯이 '구문분석말뭉치' 계층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계층구조를 가진 말뭉치는 간단한 단선적인 검색구조로는 검색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닌다. 현재 유일하게 21세기 세종 계획의 '한마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층구조를 고려한 검색이 가능하지만 계층구조가 복잡해지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검색은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매우 많다. 즉 '구문분석말뭉치'는 말뭉치 구축 문제와 더불어 검색도구의 개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말뭉치 안에 담긴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검색의 어려움을 안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층구조를 하나의 말뭉치에 모두 담을 것이 아니라 각 계

층구조에 해당하는 분석을 따로 분리하여 여러 개의 말뭉치에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능 범주 주석말뭉치’를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기능 범주’가 주석되어 있는 말뭉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어 연구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는 품사나 형태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대명사 ‘무엇’은 대용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의문사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관형사 ‘이, 그, 저’는 지시관형사로서 수식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간투사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품사체계 중심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즉 이들은 어떠한 문맥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기능범주주석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능범주주석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가령, 접속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말뭉치의 주석을 단다고 하더라도 접속이라는 기능 범주 내에서 ‘대등, 역접, 이접’과 같은 세부 기능 범주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 범주 설정은 세부적으로 갈수록 그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문제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합문법기술을 위한 자료 구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어와 문어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역에서 나타나는 문법 양상을 세밀히 기술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를 위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말뭉치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대화 형태분석말뭉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보다 효과적으로 문법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말뭉치의 주석 체계에서 탈피해 새로운 주석 체계도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그쳤지만 단순하게 언급되고 그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자료 구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각의 문제들은 향후 통합문법기술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하나씩 해결해야 할 새로운 논의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V. 결 론

본고는 문법 기술에 있어서 '실현된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반성하면서 구어와 문어 문법을 서로 상이하거나 동떨어진 양극의 문법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 둘의 문법을 아우르는 통합 문법 기술을 이론화하여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구어와 문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와 함축 등과 관련하여 이 둘을 사용역에 따른 실현 양상의 차이로 보아, 통합 문법 기술을 위해 기존 '문어 문법'이 다루었던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기술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을 아우르는 문법 체계 기술을 위해 기능적 관점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향후 통합 문법의 문법 범주 설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능적 관점의 차용이 매우 유용하리라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본고는 이러한 문법 기술을 위해 필요한 실제 자료 구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자료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기존 문법 연구에서 간과했던 실제 언어 자료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반성하고, 문법 현상 기술에 대한 접근을 사용역에 따른 접근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언어적

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찾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삶과 생활 구조를 설명하는 일이야말로 인문학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적 언어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범모·김홍규·허명희 (2000).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문제, 유형』, 서울: 태학사.
- 강상호 (1989). 『조선어입말체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강지수 (2005). “구어체 담화와 문어체 담화의 문법 현상 비교”. 『어문연구』, 제 47호, 63-82.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문법론』, 서울: 집문당
- 권재일 (2002). “한국어 의문문의 실현 방법과 그 언어유형론적 특성-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글학회』 제 257호, 167-200.
- 권재일 (2003). “구어 한국어에서 서술문의 실현방법의 공시태와 통시태”. 『언어학』, 제 37호, 25-46.
- 권재일 (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 (2006). “구어 문법과 조사의 생략”. 『이병근 선생 퇴임 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429-446.
- 국립국어원 (2007ㄱ). 『21세기 세종계획 특수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2007ㄴ).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 김건희·권재일 (2004). “구어 조사의 특성-문법 표준화를 위한 계량적 분석”. 『한말연구』, 제 15호, 1-22.
- 김미형 (2004).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제 15호, 23-73.

-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 (2002). 『기능 영문법』, 서울: 박이정.
[T. Givon(1993), <English Grammar – a Functional based Introdu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김창섭 (2008). “문어와 구어에서의 조사 ‘의’의 문법”. 『진단학보』, 제 106호, 79-115.
- 김혜영 (2009). “구어에서 나타나는 정도부사의 사용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삼·고영근 (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남길임 (2006). “텍스트 장르에 따른 문장 확대 양상 연구”. 『텍스트 언어학』, 제 21호, 179-206.
- 노대규 (1989). “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특성”. 『매지논총』, 제 6호, 1-47.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목정수 (2010). “구어 한국어를 위한 문법 모형”. 『한국어학』, 제 46호, 81-122.
- 박동근 (2004). “구어 흉내말의 계량적 연구”. 『한말연구』 제 15호, 167-186.
- 박동진 (2007).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법무부 용역 보고서.
- 박석준·남길임·서상규 (2005). “대학생 구어 텍스트에서 조사, 어미의 분포와 사용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 14호, 139-167.
- 박진호 (2008). “자리채우미(placeholders)”. 『KLing』, 제 2호, 1-6.
- 박진호 (2010ㄱ). “언어학에서의 범주와 유형”. 『인문학연구』, 제 17호, 265-292.
- 박진호 (2010ㄴ). “자리채우미(placeholder)에 대한 補論”. 『2010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5-118.
- 서상규·김형정 (2005). “구어 말뭉치 설계의 몇 가지 조건”.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제 14-16호 합집, 5-29.

- 서상규·구현정 공편 (2002). 『한국어 구어 연구1』, 서울: 한국문화사.
- 서상규·구현정 공편 (2005). 『한국어 구어 연구2』, 서울: 한국문화사.
- 서은아 (2004ㄱ). “구어와 문어의 문형 연구-단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 24호, 99-129.
- 서은아 (2004ㄴ). “구어 문형의 생략 현상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 12-2호, 131-150.
- 서은아·남길임·서상규 (2004).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각문 유형 연구”. 『한글』, 264, 123-151.
- 신지연 (1993). “구어에서의 지시어의 용법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 29-3호, 363-382.
- 신지연 (2002ㄱ). “구어 정도부사의 표현적 기능”. 『어문연구』, 제 40호, 125-141.
- 신지연 (2002ㄴ). “국어 구어의 부사 연구”. 『인문과학』, 제 11호, 109-128.
- 왕문용·민현식 (1995). 『국어 문법론의 이해』, 서울: 개문사.
- 유혜원 (2009). “구어에 나타난 주격조사 연구”. 『한국어의미학』, 제 28호, 147-169.
- 유혜원 (2011). ““이”와 “에”의 교체 구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 50호, 173-202.
- 이기갑 (2002). “국어 입말 담화에서의 인용문”,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573-584.
- 이소영 (1996). “현대 국어의 구어 문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은경 (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 기능”. 『국어학』, 제 34호, 167-198.
- 이익섭·임홍빈 (1994).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이태수 (2004). 『심심해서 그랬어』, 보리.

- 임정진 (2000). 『지구에 구멍을 뚫어요』, 삼성출판사.
- 임홍빈·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장경현 (2003). “문어/문어체, 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의미학』, 제 13호, 143-165.
- 장경희 (2010). “구어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제 45호, 1-26.
- 장소원 (1986). “문법 기술에 있어서의 문어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옥 (2007ㄱ). “구어와 문어에 나타난 ‘그리고’ 연구”. 『담화와 인지』, 제 14-2호, 217-248.
- 전영옥 (2007ㄴ). “구어와 문어의 접속부사 실현 양상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 22, 223-247.
- 전영옥 (2007ㄷ). “문어와 구어에 나타난 ‘그러나’ 연구”. 『한말연구』, 제 21호, 205-245.
- 전영옥·남길임 (2005). “구어와 문어의 접속 표현 비교 연구”. 『한말연구』, 제 17호, 169-194.
- 지현숙 (2006). “한국어 구어 문법 능력의 과제 기반 평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현숙 (2007).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을 위한 과제 기반 교수법”. 『국어교육연구』, 제 20호, 247-270.
- 지현숙 (2009). “‘교육 문법’에 있어서 한국어 구어 문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어학』, 제 45호, 113-139.
- 채숙희 (2010). “인용동사로 쓰이는 ‘이러다’, ‘그러다’ 연구”. 『국어학』, 제 58호, 201-230.
- 최명식 (1985/1996). 『조선어 입말체 문장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최정순 (2006). “한국어 교육 방법론의 재검토-의사소통적 구어 능력 개발을 위한 제언-”. 『국어교육연구』, 제 18호, 91-121.
- 최현배 (1937/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허용 (1983). 『국어학』, 샘문화사.

Biber, D. (1988).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ber 외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Biber, D., Conrad, S., Reppen, R. (1998). *Corpus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ter, R. and McCarthy, M.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athy, M. (1998). *Spoken language and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an Integrated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n Contemporary Korean
and the Problem with Building Corpus

Bae, Jin-Young·Son, Hye-Ok·Kim, Min-Gook

This study intends to theorize and systemize an integrated grammar covering both spoken and written language while not characterizing the grammars of both spoken and written language as extremities that are discrepant or remote. The direction of the study of grammar that this study pursues is to approach the difference in grammar realization aspects in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not from a simple dichotomous perspective 'spoken language vs. written language.' Instead, the approach takes the viewpoint arguing that the difference in the aspects of grammar realization is the difference in a register that is diversely expressed in degrees in speaking or writing. Accordingl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description of the integrated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s to describe the grammatical phenomena according to register based on actual language material,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such phenomena, and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proper detail.

When describing and analyzing various grammatical aspects that were expressed i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we also felt it necessary to include the situations in which the language was placed, that is, the intention of the language user which included the text register element as assumed by us.

This study suggests that a functional perspective should be

taken to describe a grammar system that covers the grammar of both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In addition, this study notes that we need material that was classified with various registers for the description of an integrated grammar as pursued here. We also mentioned the problem of building the actual corpus for such a purpose.

Key words: integrated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register, corpus

- 논문투고일: 2011년 4월 28일
- 논문심사일: 2011년 5월 10일-6월 09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0일